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 탐구

연구책임 | 김의현 (amazing aging 독립 활동 연구자)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요약

### □ 연구 목적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 중 ‘세대 교류’에 집중한 이유는 청년이 고령화 사회에서 일과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년과 나이 듦에 대한 이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즉 고령화를 기회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고령 친화 산업에서 청년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청년에게도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 □ 연구 방법

첫째, 고령화 사회와 세대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정책문건, 웹사이트, 기사 검색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

둘째, 국내외 세대 교류 현황 및 사례를 파악했다. 특히 해외 사례의 경우 세대 간 교류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 이루어진 선진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단순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에 더하여 연구자가 직접 해당 프로젝트 기획자와 정책 운영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시사점을 어떻게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셋째,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심층 면접은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노년기 일상 생활 속의 어려움,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 □ 개선방안 및 제언

첫째, 청년이 디지털 전환·격차 해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가칭, 찾아가는 ‘청년 소셜 커넥터’이다.

둘째, 노인 복지관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세대 간 교류 경험을 만들기 위해 청년 새싹 강사의 데뷔를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목 차

## Contents

### I \_ 서론 / 583

- 1. 연구 배경 ————— 583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584
- 3. 연구 방법 ————— 584

### II \_ 현황 파악 및 선행연구 검토 / 586

- 1. 고령화 사회 현황 파악 ————— 586
- 2. 세대 관련 현황 파악 ————— 590

### III \_ 국내외 세대 교류 및 상생 사례 / 593

- 1. 국내 사례 ————— 593
- 2. 해외 사례 : 기획자 인터뷰 중심으로 ————— 597
-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 608

### IV \_ 경기도 거주 노인의 생활 속 필요 조사 / 610

- 1. 조사 개요 ————— 610
- 2. 조사 결과 ————— 611

### V \_ 결론 / 621

- 1. 결론 및 시사점 ————— 621
- 2. 개선 사항 및 제언 ————— 622

### \_ 참고문헌 / 625

## 표목차

### Contents

〈표 1〉 심층 면접 대상자 현황	611
〈표 2〉 노년기 필요 이슈별 상·하위 테마	611

## I

## 서론

## 1. 연구 배경

WHO 고령 친화 도시 모델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 친화적 사회 참여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노인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정순돌·어윤경, 2012).

또한 고령화는 노인 부양 인구 및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초래하며, 실제로 노년 부양비가 2000년에는 10.1명, 2015년에는 17.9명, 2030년에는 38.6명, 2050년에는 71.0명으로 예상되는데(통계청, 2018), 노년 부양비 증가는 미래의 노인 부양 부담을 지게 될 청년들의 부담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경쟁 등 세대 간 갈등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주목할 점은 노년의 삶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실제 노인과 청년층에게 노년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노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던 반면,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노년의 삶을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노인인권종합보고서, 2018).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세대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고 고령층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콘텐츠 또한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서로의 세대를 인식하고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서로 비슷한 연령대끼리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와 ‘타인’을 뚜렷하게 갈라놓게 되고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연령 차별과 편견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얼마나 노년 세대와 가깝게 소통하고 가깝게 느끼느냐가 나이 들을 나의 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세대 간의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 중 ‘세대 교류’에 집중한 이유는, 청년이 고령화 사회에서 일과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년과 나이 듦에 대한 이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이라는 기회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 자산소득, 기술 및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자 또는 앞으로의 예비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즉 고령화를 기회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고령 친화 산업에서 청년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청년에게도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과 청년이 교류를 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산업 발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고령화 사회와 세대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정책문건, 웹사이트, 기사 검색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

둘째, 국내외 세대 교류 현황 및 사례를 파악했다. 특히 해외 사례의 경우 세대 간 교류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 이루어진 선진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단순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에 더하여 연구자가 직접 해당 프로젝트 기획자와 정책 운영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시



사점을 어떻게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셋째,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심층 면접은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노년기 일상 생활 속의 어려움,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 연구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양호하며 지역 사회에 자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 속 일상적인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노년기의 보편적인 어려움 중에서 경기도 거주 노인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위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세대 간 상생을 위해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탐구하고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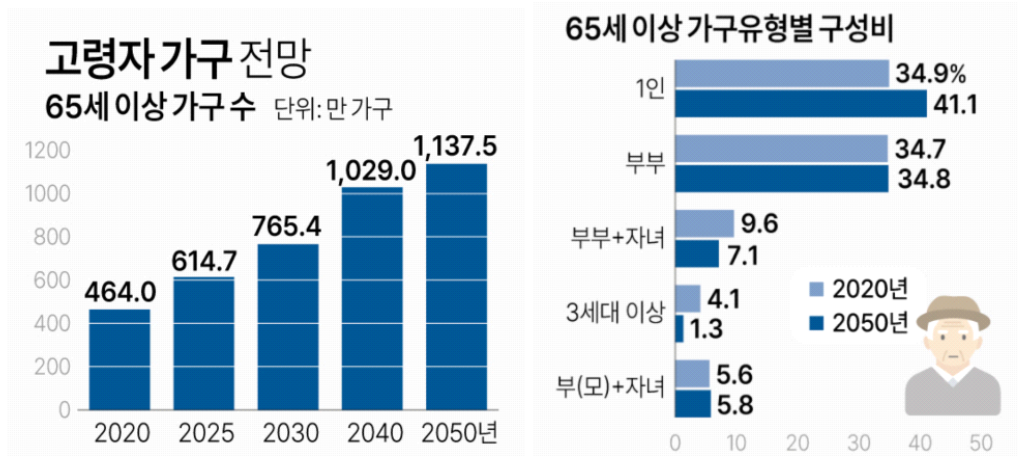
## II

## 현황 파악 및 선행연구 검토

## 1. 고령화 사회 현황 파악

## 1) 개념 정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 인력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의료 및 복지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해당 도시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 사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정은하, 2016).



(자료: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 2020~2050년」 / 그래픽: 원형민 연합뉴스 기자)

앞으로 노인 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900만 명에 육박했다.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14.4%) 고령 사회로 구분된 데 이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15~64세)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면서 초고령 사회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65세 고령 인구 중 내국인 862만 명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65~74세는 전체 고령 인구의 58.0%, 75~84세는 31.9%, 85세 이상은 10.1%를 차지했다(자료: 통계청 / 기사: 대한민국 인구 처음 줄었다...노인 900만 명 육박 '초고령 사회' 가속).

향후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선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고령자 가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도 2040년 이후부터는 2명 아래로 떨어진다(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 2020~2050년」).

## 2) 국내 노년기 삶의 질

한국의 노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보건복지부 조사, 2019), 노인의 삶의 만족이 다른 연령,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연령 중에서도 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중년기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가 노년이 되어서 회복하는 U자형인 반면, 국내의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성아·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 3)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

### (1) 고령 친화의 개념

“고령 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경기도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지원 조례).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이 고

령 사회에 대한 중요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지방정부마다 고령 친화 도시와 마을 공동체 등을 구성하여 노력하는 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춘남, 2020; 이연호, 2020).

이러한 고령 친화 환경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적인 생활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가 지원되는 공간적·사회적 환경이 강조되며(임정숙·정순돌, 2017), 이러한 점에서 고령 친화 환경의 구성은 모든 세대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령 친화 환경의 구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한해 연구되어왔다(정순돌·김미리, 2017; 장영은·김신열, 2014).

## (2)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

고령 친화 산업이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산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에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모바일과 인공지능 및 로봇 분야가 접목되면서 혁신 고령 친화 산업에 관심이 모아졌다.

고령 친화 산업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다.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와 용품 또는 의료 기기, 노인을 위한 의약품, 노인 요양 서비스,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 정보 기기 및 서비스, 화장품, 식품 및 급식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망라한다.

## 4) 현 고령 친화 산업 지원 현황 및 사례

현재 고령 친화 산업 관련 지원 사업 및 정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1)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

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고령자 친화 기업’을 지정하고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

(지원 금액) 사업 유형별 1억~3억 원 이내 지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 2022년도 「혁신형 고령 친화 기업 집중 육성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국내 고령 친화 기업 중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추거나 혁신적인 고령 친화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고령 친화 기업’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령 친화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사업 내용) 혁신형 고령 친화 기업의 혁신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혁신, 사업화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및 성과 창출 중심의 성장 촉진 지원

(지원 대상)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존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지원 금액) 기업당 5,000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3) 2022년 디지털 기반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예비창업자 과정

(사업 목적) 초고령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내용) 교육 및 집중 멘토링

(지원 대상)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 청장년 세대(2060세대) 중 고령 친화 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혜택)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가의 특강,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 멘토링 제공, 고령 친화 산업 관련 전문가의 특강 및 창업 가이드 제공

#### (4) 경기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4.] 제6조 (전문 인력의 양성)

- ① 도지사는 고령 친화 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고령 친화 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세대 관련 현황 파악

### 1) 세대 간 갈등

최근에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청년 실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세대 갈등 인식 정기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였다(매우 심각하다 20%, 심각한 편이다 61%).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4%포인트 감소하였다. 전 연령대에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1년 전 대비 3~6%포인트 감소하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86%였다(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43%,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43%). 세대 갈등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높으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포인트 낮아졌다(한국리서치, [세대 인식 지표 - 2022년] 세대 갈등 인식과 전망).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세대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차장, ‘사분오열 대한민국 ④ - 세대 이해가 세대 갈등 해결의 실마리’)*

위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각 세대의 고통의 경중을 저울질하면서 청년들이 더 아픈지, 노인들이 더 아픈지 따지는 세대와 세대 비교하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혐오 기획] 세대 갈등을 딛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법’).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기보다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세대 교류 모델을 정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청년과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2) 세대 간 디지털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란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는 반면, 디지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 격차는 단순한 ‘격차’에서 끝나지 않고, 인식과 생각,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어 ‘소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테크놀로지의 영역들이 이제는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로 자리 잡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이 닿지 못하는 곳이 노년층이다. 노인 인구 중 대부분이 옛날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고 유용한 기술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 또한 기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습득하고 싶어도 시니어 혼자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러한 디지털 간극은 초연결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증가시킨다. 정보 격차로 인해서 노인이 소외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연령 또는 세대에 따라 정보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있다.

김용희 교수(광주대 심리학과)는 신체 능력 저하와 디지털 소외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인지 능력 저하에 따라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져 노년층과 청장년층 사이에 정보처리 능력 격차가 벌어지죠.” (손의현 중대신문 기자, ‘기대되는 정보화 시대, 노인이

기댈 곳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노년층의 교육 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초 복지 예산과 의료 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과 김범중 교수는 “한정된 복지 예산 중 재사회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의현 중대신문 기자, ‘기대되는 정보화 시대, 노인이 기댈 곳은’)

정보화 기기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연결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III

## 국내외 세대 교류 및 상생 사례

## 1. 국내 사례

## 1) 성북구 고령 친화 맞춤형 하우징케어 분야 청년 인재 모집

성북구 고령 친화 맞춤형 주거 관리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세대 간 상생 사례이다. 고령자에게는 주거환경을 ‘고령 친화 맞춤형’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을, 청년에게는 전문 일자리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주거 관리 분야는 집수리, 청소 및 방역, 정리 수납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 어르신 주거시설 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의 창의적인 청년을 모집하고 선발하였다. ‘고령 친화 주거 관리 전문가’로서 취·창업 기회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 및 집수리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전문적인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아 공동 창업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했다.



성북구는 고령친화형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관리(집수리, 청소 및 방역, 정리수납 분야)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창의적인 청년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고령친화형 주거관리 전문가'로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고령친화 주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기간 2019. 2. 13. (수) ~ 3. 5. (화)**

<b>사업설명회</b> 2019.3.4. (월) 14시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b>신청문의</b> 02-2241-2319
---	-----------------------------

(자료: 성북구청 홈페이지)

성북구가 선발한 청년 인재 16명은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등에서 개발한 기초 이론 교육 140시간, 현장 실습 교육 160시간을 받았다. 미끄럼 방지, 문턱 없애기, 보행 안전 손잡이 달기, 수납공간 설치하기, 싱크대 높이 조절하기 등 노인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주택 개조에 나선다. 기존의 일반적인 집수리 업체들은 집 안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일부 개조하기보다는 집 전체를 수리하는 작업을 선호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만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고령 친화 맞춤형’으로 개조하는 전문 인력을 청년 세대로 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 2) 함께 오순도순 서로 토닥토닥, 한 지붕 세대 공감

한 지붕 세대 공감은 대학생의 주거 마련을 위해 대학가나 청년이 많이 사는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학생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택(방 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이다. 연중 상시 접수하며 서울주거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학생에게는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와 더불어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관악구청 ‘한 지붕 세대 공감’ 소개 페이지). 어르신에게는 방 1실당 100만 원 이내 환경 개선(도배, 장판 등)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청년에게는 무보증금으로 학교와 근접한 주거공간에서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각 세대의 입장에서 필요한 혜택을 받는 세대 간 상생 모델이다(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함께 오순도순 서로 토닥토닥  
같이 살면 행복해요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한지붕세대공감이란?  
대학가 인근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꺼비 세상에서  
**한지붕세대공감**  
신청하세요

문의 120 | 접수처 자치구 또는 [www.dukkubisesang.co.kr](http://www.dukkubisesang.co.kr) | [한지붕세대공감](#) | [문의](#)

신청자격	어르신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방 1개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혜택	어르신	방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 개선공사 생활상의 필요 활동 분담
	학생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학생	무보증금 학교와 근접한 주거공간

(자료: 서울시)

운영 절차는 주택과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고 주택과에서 대상자를 매칭해준다. 서울시 및 SH에서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사후 관리를 한다. 입주 시기 및 조건 등은 어르신과 대학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최소 계약 기간은 6개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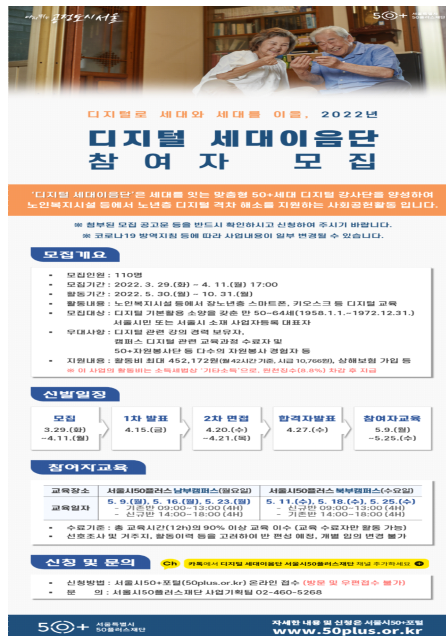
## □ 운영 절차



(자료: 관악구청 분야별 정보 '한 지붕 세대 공감' 소개 페이지)

### 3) 디지털 세대 이음단

디지털 세대 이음단은 고령층을 깊이 이해하는 50+세대 강사가 소규모(1:2) 방식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사회 공익 사업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디지털 세대 이음단 소개 책자). 은퇴 후 50+세대는 교육 활동에 대한 정당한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70세 이상 고령층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 세대와 세대들 이음, 2022년**

## 디지털 세대이음단 참여자 모집

『디지털 세대이음단』은 세대를 잇는 활동형 50+세대 디지털 강사단을 양성하여 노인복지사업 등에서 노인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 정부당 모집 공고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개요

- 모집인원: 110명
- 모집기간: 2022. 3. 29.(금) ~ 4. 11.(월) 17:00
- 활동기간: 2022. 5. 30.(월) ~ 10. 31.(월)
- 활동내용: 노인복지사업 등에서 장노년층 스마트폰, 귀소스 등 디지털 교육
- 모집대상: 디지털 기본활동 수업을 받은 만 50~64세(1958.1.1.~1972.12.31.)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 대표자
- 무대사항: 디지털 관련 강의 진행, 발표자, 멘토스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의 수강자 및 50+가정봉사단 등 다수의 자원봉사 경험자 등
- 지원내용: 활동비 최대 452,172원(월 42시간 기준, 시급 10,760원), 상해보험 가입 등
- ※ 이 사업의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8.8%) 차감 후 지급

### 선발일정

모집 3.29.(금) ~ 4.11.(월) → 1차 발표 4.15.(금) → 2차 면접 4.21.(목) → 합격자 발표 4.27.(수) → 참여자 교육 5.9.(월) ~ 5.25.(수)

### 참여자기료

교육장소	서울시50플러스센터 남부캠퍼스(영등포)	서울시50플러스센터 북부캠퍼스(수유동)
교육일자	5. 9.(월), 5. 16.(월), 5. 23.(월) 기준시간 09:00~13:00 (4시간) - 신청만 14:00~18:00 (4시간)	5. 11.(수), 5. 18.(수), 5. 25.(수) 기준시간 09:00~13:00 (4시간) - 신청만 14:00~18:00 (4시간)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12시간)의 90% 이상 교육 이수 (교육 수강자만 활동 가능)	
신청조사 및 거주지,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만 편성 예정, 개별 문의 가능		

### 신청 및 문의

※ **이메일** : 서울50+포털(50plus.or.kr)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문** : 서울50플러스재단 사업기획팀 02-460-5268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서울50+포털 [www.50plus.or.kr](http://www.50plus.or.kr)

디지털 세대 이음단 모집 공고 포스터 (자료: 서울시)

디지털 교육을 받은 50+세대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무인/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선주 생애전환지원본부장은 50+세대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고민도 이해할 수 있는 세대라고 했다(뉴스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디지털 세대 이음단 100명 모집').

해당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과 교육 진행 과정이다.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70~75세로 사용자를 설정한 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령층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고령층의 관심사 및 생활 속

어려움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주제를 설정하고 솔루션을 매칭했다(기본 설정, 문화, 생활, 관계, 건강 등 5개 카테고리 아래 33개의 구체적인 주제로 분류)(출처: 디지털 세대 이음단 공식 소개서). 이를 워크북 및 교구, 강사 매뉴얼에 반영하였다(카드 형태의 워크북과 손끝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 직접 조립해보는 키오스크 모형 / 스토리텔링 형식의 강사 매뉴얼).

교육 진행 과정에서는 관심과 공감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늘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는 사람은 어르신이었다. 고령자가 일상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하면, 해당하는 주제의 카드들을 골라 링에 끼우며 학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한 워크북에 직접 스티커를 붙이며 스마트폰과 키오스크의 기능을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였다. 50+세대 강사는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된 강사지도서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세대 간 상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특성, 특히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디자인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2. 해외 사례 : 기획자 인터뷰 중심으로

연구자가 지난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세대 간 교류 및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해외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경기도 청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지원 정책 제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기획자와 담당자의 생각과 관점,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1) 콘텐츠와 공간을 활용해 세대 간 교류를 만드는 ‘투게더 프로젝트’

*“치매 노인들이 모여 사는 영국 런던의 한 요양원에 들어서니 노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4세 이하 아이 8명이 카펫 위를 뒹굴며 놀았고, 아이 부모들과 18명의 요양원 노인이 카펫을 빙 둘러앉았다. 이들은 서로 가족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아니다. 아이들과 아이 부모들, 휠체어 탄 노인들은 강사가 가르쳐주는 노래를 다*

함께 따라 부르고 울동도 배웠다.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져보고 부드러운 스카프에 얼굴을 부비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그저 즐거워하는 아이들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투게더 프로젝트(The Together Project)’가 진행하는 ‘노래와 미소(Songs & Smiles)’ 프로그램의 현장 묘사이다.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노인 요양원에서 진행한다. 콘텐츠와 공간을 연결해, 세대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디자인했다. 프로젝트의 반응이 좋아 설립 2년 만에 21개 요양원으로 확대되었고 영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와 부모의 수가 일주일 평균 200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을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했는지, 프로젝트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루이스 굴든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다.

#### (1)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 ‘서로에게 유익한 모임’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은 서로에게 유익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관계가 아니예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무언가 얻어갑니다. 아이, 부모, 노인까지 모임에 참여하는 3세대가 각자 무언가를 얻어갑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노인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됩니다. 아이가 노인을 놀이 친구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또 자신의 부모가 치매 노인을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공감 능력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아이는 치매 노인도 우리 사회의 일 부라는 걸 이해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아이의 부모도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끼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실 사회적 고립은 노인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는 부모도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처하면서 같은 문제를 겪죠. 아이를 돌보다 보니 계속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서 사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자녀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 즐거워하시죠.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모임을 찾아갈 뿐인데, 그 자체로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예요. 자신의 아이가 노인들과 함께 지내는 기회가 매우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대를 연결하면 우리는 보다 포용적이고 친근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매 등 노화로 인한 장애를 경험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런 장애를 가진 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투게더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 프로그램 자체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프로그램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전문 음악치료사와 모든 연령대의 각기 다른 조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우선,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악기, 노래, 비눗방울, 색색의 스카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포맷을 만듭니다. 아기는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치매 노인은 기억력이 쇠퇴해 쉽게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노래는 노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틀어요. 말이나 노래를 따라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부드러운 스카프를 나눠주고 촉감을 활용합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기계로 비눗방울을 만들어 내 색감을 느껴보게 해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 노래는 부를 수 없지만 촉감과 색감을 느끼며 참여하고 싶은 사람 모두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참가자들이 이 환경에 친숙해지도록 매번 같은 포맷으로 진행합니다. 일례로, 아이 부모님들은 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때 “나와 내 아이가 우리 동네 이웃을 위해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나와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일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런데 일단 경험해본 뒤엔 내용이 알차고 수준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 (3) 각 세대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세대 교류의 긍정적 효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요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요. 특정 노인 몇 명에게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 참여 전의 상태, 참여하는 동안의 감정 변화 등을 조사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조사를 진행해요.

참여 전후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점에서 유익했는지 피드백을 받습니

다. 한 부모님은 자기 아이가 처음엔 수줍고 낯설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엄마와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돌아다니고 먼저 노인에게 다가가 손 흔들며 인사했다고 알려주셨어요.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이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런 자료가 매우 귀중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던 한 아이는 어느 날 마트에서 노인들을 보고는 손으로 가리키며 “어, 친구다!”라고 말했대요. 그 아이는 노인을 함께 노래 부르는 친구로 만나왔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노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는 처음엔 좀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긴장해요. 하지만 노인과의 교류가 일상적인 일이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노인을 친구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투게더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목적을 갖게 됐으며 더 큰 공동체와 연결됐다. 항상 나를 응원하는 가족과 같은 강한 네트워크를 갖게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참가자의 몇 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참가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 평가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안들을 찾고 시도하고 있어요.”

## 2)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더블린 시티 대학교 트루디 코리건 교수

아일랜드의 더블린 시티 대학교는 ‘모든 연령에 친화적인 대학’ 글로벌 네트워크(AFU)를 주도해왔다. 이곳에서 조교수를 맡고 있는 트루디 코리건 박사는 더블린 시티 대학교의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Dublin City University Intergenerational Learning Programme) 창시자다.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소셜 미디어 활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그녀의 연구 관심사는 세대 간 학습과, 노인과 젊은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는 긍정적 노화, 세대 간 공간의 디자인 및 개발에 있다.



## (1)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고령화 사회에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

“우리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대학 내 젊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의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함께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각 세대가 서로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일정 기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중 몇몇은 그들 또한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서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학생 중 몇몇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화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린다는 것이고 우리 사이에 공통점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기 전까지는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 통합은 사회의 연령차별주의적 태도를 깨트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청년의 입장에서 세대 간 학습의 장점

세대 간 학습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해주기 위해 진행된 학습 프로그램에서 청년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을 소개해주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하길, 모든 학생이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세대 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른들을 만나고 그들이 알려주는 넓은 세계관, 그들의 인생 경험을 들으며 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요했던 또 다른 경험은, 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어른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봤을 때였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대처 능력, 회복 능력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그들의 대학 생활

에 균형을 잡아주었다고 이야기했죠. 두 세대가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3)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쓰고 있는 많은 자금이 정말로 아픈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신체는 건강하지만 외로움과 고립으로 고통받고 그들의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노인에게는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과정에 세대 통합 교육을 포함하는 등의 훨씬 더 구조화된 정부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 부처와 노인들을 위한 부처가 함께 협력할 수도 있겠죠.

시민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환경을 돌볼 책임을 이야기하는 만큼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공간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세대가 모이는 공간은 현재의 우리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지역 사회에 있는 지역 센터, 지역 학교, 지역 내의 공간/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3) 혼자 사는 노인과 청년 세입자를 연결하는 국제 단체 ‘앙상블 두 제네라시옹’

‘앙상블 두 제네라시옹(Ensemble 2 Générations)’은 프랑스의 가톨릭연대에서 운영하는 세대 간 공공 주거 모델이다. 2006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돼 국제단체로 성장한 앙상블 두 제네라시옹은 혼자 사는 노인과 젊은 하숙생을 5,000쌍 넘게 연결했다. 이

협회는 점점 더 소외되는 노인들, 점점 더 비싸지는 학생들의 주거 비용, 그리고 세대 간의 유대관계,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세대 간 공공 주거를 제안했다. 학생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도움을 제한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가능하게 하고, 노인들에게는 연대와 상호 지원의 정신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유를 제안한다.

세대 간 공공 주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젊은’ 또는 ‘늙은’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서로 간의 부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차이를 좁혀주는 공동 주거는 세대, 문화, 문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인간적인 접근이면서 사회의 고령화 적응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

청년이 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세 없이 저녁 7시 또는 7시 30분부터는 집에 들어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함께 식사해야 한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일주일에 하루 자유로운 저녁 시간을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자유로운 주말, 그리고 4주의 휴가(크리스마스 한 주를 포함)를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매달 100유로의 저렴한 방세를 내면서 쇼핑, 산책, 정원 가꾸기, 영화 관람, 독서, 컴퓨터 사용 돕기 등의 일을 돕는다. 세 번째, 매달 350에서 500유로의 방세를 내면서 제약 없이 방을 세놓는 것이다. 노인을 돕는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의 방세는 도시보다 더 저렴하다. 협회에 390유로의 기부금을 내며 이것은 매년 갱신된다.

참여 자격은 간단하다. 27세 미만의 싱글 학생이어야 하고, 프랑스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조용하고 따뜻한 숙소를 찾고 있는 학생이어야 하며 노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세대 간 교류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노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60세 이상이며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학생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따뜻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된다. 학생들이 적당한 가격에 조용하고 따뜻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파리에서 시작된 세대 간 공공 주거 모델은 긍정적인 효과와 질 높은 운영 방식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파리에 7개 지점, 지방에 25개 지점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캐나다, 마르티니크, 체코, 르우니온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지점 중에 파리의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10년을 일해온 조엘 앙로뜨(Joëlle HENROTTE) 씨는 노인과 청

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통의 이야깃거리’라고 말했다.

“세대 간 공공 주거 모델은 이미 정부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프랑스 학생들의 거주 문제와 노인의 고립 문제를 ‘공유 주거’라는 해결책으로 ‘세대 간 교류’를 조성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세대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대를 한데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해요.”

“노인의 집을 찾아가 시설을 점검하고 1시간 이상 면접을 거쳐 양쪽 특징과 요구를 파악해요. 노인과 청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통의 이야깃거리예요. 아프리카로 자주 봉사활동 떠나는 노인과 아프리카 역사 전공 학생을 연결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세대 간 공공 주거 모델이 세대 간의 교류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지, 협회의 세심한 노력을 통해 이어져서 함께 사는 노인과 청년을 인터뷰했다. 노인(75세) 멤버는 2014년부터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청년(22)은 2019년 10월 초부터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 (1) 앙상블 두 제네라시옹의 멤버가 되기로 한 동기

“2012년에 남편이 죽고 저는 혼자 교외의 큰 집에 남겨졌었고 아이들은 이미 집을 떠나서 살고 있었죠. 그때 친구를 통해 앙상블 두 제네라시옹을 알게 되었어요. 이 집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가입했고 파리 지역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어린 소녀를 소개받았습니다. 우리는 상호 합의를 통해 함께 살기로 했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금씩 진정한 콤비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합의된 ‘규칙’을 따르면서도 나눔과 이해, 상호 자애심 속에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6년 동안, 매년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앙상블 두 제네라시옹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 동부에서 온 학생인데, 파리의 생활비, 특히 임대료가 고향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 파리에서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원해서 세대 공동 주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 (2) 다른 세대와 함께 사는 것의 장단점

“장점은, 서로의 많은 차이점을 상호 존중하며 맺는 흥미로운 교류와 나눔입니다. 이것은 생기를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좋은 저녁을 준비하고 작은 선물을 주는 기쁨이죠.

단점은, 학생이 쉬거나 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노인)

“장점은, 다양하고 풍요로운 교류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돕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단점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은 원래 많은 존중이 필요한 일이죠. 특히 다른 세대와 살 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

## (3) 세대 간 공동 주거가 세대 교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효성

“우리가 매일 서로를 만나는 것은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차이 덕분에 오히려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만듭니다.” (노인)

“이런 주거 모델 덕분에, 매일 노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생깁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고 정직하며 이웃을 잘 알고 예의를 갖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저와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 안심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고 상호 원조와 타인에 대한 개방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

## (4) 기관의 자세한 정보 전달과 세심한 매칭 과정의 중요성

“협회는 항상 먼저 학생을 만나고 저와 연결해주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맞이하기 전에 양쪽 모두 존중해야 할 규칙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단 한번, 협회가 먼저 입주자를 만나지 않았을 때 저와 입주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협회를 통해 정리되었지만, 그들이 학생을 먼저 만나 인터뷰하고 저

와의 적절한 연결을 찾아주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협회 회장과의 인터뷰와 안내 책자에서 세대 간 공동 주거에 관한 중요한 규칙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나이, 직업 경험, 주거 시설에 대한 정보도 받았습니다. 다만 입주하기 전 인터뷰를 진행할 때 파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몇 주인들과 한 번에 인터뷰를 계획한다면 왕복 여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 4) 정부 차원의 세대 간 교류 지원, 스코틀랜드 단체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Generation Working Together)’는 스코틀랜드에서 세대 교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정부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 네트워킹,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7년 3월 ‘모든 우리의 미래 : 인구 고령화 계획(All Our Futures : Planning for a Scotland with an Ageing Popula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제4장 ‘세대 간 연계’에서는 ‘세대 간 관행은 상호 존중,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제공해야 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좋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응집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스코틀랜드 세대 간 실천 센터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것이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이다. 처음에는 정부의 보고서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는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기점으로 사회적 고립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국가 전략을 개발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아래 보고서 내용 일부에서 스코틀랜드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해 대응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세계와 고령화 인구의 맥락에서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행동과 업적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행동, 서비스 및 인프라가 변화하는 인구통계학적 상황에 완전히 반영되고 적응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스코틀랜드의 세대 간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의 대표 앨리슨 클라이드 대표를 만나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1) 세대 간 교류에 집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세대 간 교류에 집중하는 국가 차원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독창적 시도로, 다른 나라엔 이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 기관을 후원하며 2019년의 경우 재정 지원을 늘렸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포함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2)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자 : 단체 교육, 네트워킹, 정책 수립 등 지원

“저희는 곳곳에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하며 자신감을 줍니다. 이런 단체가 지속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킹과 교육이에요. 스코틀랜드 전역에 18개 네트워크를 주관하며 1년에 2~4번씩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각 지역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모여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동기 부여를 얻도록 돕습니다.

또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을 설득해 재정을 확보합니다. 세대 간 교류 프로젝트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넉넉하게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재정이 부족한 경우엔 여러 세대가 아니라 특정 세대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한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세대 간 교류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회가 마련되는 일

“여러 세대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면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청년은 에너지와 창의력을 갖고 있죠.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세대 통합 작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바꾸는 일이며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 고령화에 직면한 많은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해법입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이 나누지 않은 많은 스킬과 자원이 있어요. 세대 간 교류는 각 세대에게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경기도 청년의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 제언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해외 사례의 태도는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세대가 한 공간에 모이고 싶거나 모여야 하게끔 콘텐츠와 공간을 활용한다. 그리고 과정에서 서로에게 편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고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공통점을 깨닫게 한다.

둘째, 세대 교류를 목적으로 세대를 모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공통된 소재에 대한 관심과 필요로 인해 각자의 목적을 이루다보니 자연스럽게 ‘세대 교류’가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현 시점의 세대 교류 프로젝트와 정책은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고 세대 교류를 위해 ‘장’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관점이다. 따라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대상자의 나이대, 범위가 넓은 만큼 섬세하게 기획한 도구를 사용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도 섬세하게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 진심이 있다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작업들이지만 그들은 입을 모아 섬세하게 디자인된 톨킷, 관계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나아가 섬세하게 설계된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 네트워크의 소속 단체 중 하나인, 에든버러의 The Citadel Youth Center는 세대 교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톨킷을 자체 개발하였다. 또한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는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체



제작 툴킷과 다른 기관의 사례를 아카이빙하고 있다.

넷째, 각 세대를 ‘자원’ 또는 ‘자본’으로 바라보고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으로 생각한다.

제너레이션 워킹 투게더는 “세대 간 작업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와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자산과 경험을 풀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서의 내용에 따르면 노년은 주로 삶의 경험, 지혜, 재능, 그리고 그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앞으로의 수명이 길다는 것은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이들은 에너지, 창조력, 열정과 같은 자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가져온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지만 우리 모두가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일상에서 겪었을 법한 각 세대가 지닌 에너지들일 것이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으로 여겨져야 한다.

세대 간 학습 모델을 개발한 트루디 박사에 따르면 어떤 아이들과 친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길을 잃고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인생 경험 또한 그들이 가진 자본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기 쉽지만, 이 지점은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세대 간 공공 주거 모델 ‘앙상블 두 제네라시옹’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노년과 청년을 매칭해줄 때 노년이 가진 능력이 청년에게 이왕이면 쓰일 수 있도록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서 일했었던 노인을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언급하였다.

## IV

# 경기도 거주 노인의 생활 속 필요 조사

###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거주 고령자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 친화 정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노년이 느끼는 필요를 청년이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세대 교류와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년기의 일상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려고 하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생활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그다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과의 세대 교류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 현황

- 성별, 나이, 가구 형태, 자녀 유무, 경제적 상황 등 조사
-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건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월 평균 소득, 가계 소득에 대한 조사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 노년기 생활 전반
- 필요한 지원과 도움

현 고령 친화 정책 참여 경험 및 욕구

세대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협력 요청을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면접 시작 전 연구 목적, 연구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인 참여 동의 과정을 거쳤다.

<표 1> 심층 면접 대상자 현황

구분	성별	나이	가구 형태	자녀 유무	월 평균 소득액	주관적 건강 상황
1	남	84세	부부 동거	유	100만 원 전후	중
2	여	84세	독거 노인	유	100만 원 전후	중
3	여	76세	독거 노인	유	100만 원 전후	상
4	여	75세	부부 동거	유	75만 원 전후	중
5	여	76세	부부 동거	유	100만 원 전후	중
6	여	82세	독거 노인	유	100만 원 전후	중상
7	남	66세	부부 동거	유	570만 원 전후	중
8	남	70세	부부 동거	유	100만 원 이상	중상

## 2. 조사 결과

심층 면접 결과, 노년기 생활 속 필요 이슈별 상·하위 범주의 테마가 <표 2>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 2> 노년기 필요 이슈별 상·하위 테마

이슈	상위 테마	하위 테마
1. 세대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세대 교류 경험과 지속 가능 문제	1) 세대 교류 경험 2) 교류가 이어지지 않았던 아쉬움에 대한 개선 요구
	나. 청년과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1) 심리적인 편안함 예상 2) 디지털 활용에 대한 도움 예상 3) 새로운 관점에 대한 기대 4) 노인이 가진 강점에 대한 언급

이슈	상위 테마	하위 테마
2. 디지털 활용 경험과 지원 요구	가. 디지털 활용의 혜택 경험	1) 스마트 워치와 어플을 통한 운동/건강 관리
	나.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 경험	1)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변화 속도와 적응 과정에서의 걱정 2) 정보 기기 이용 교육 요구 3) 일상적인 디지털 어려움 해소 필요
3. 노년기를 위한 정책 지원과 개선 요구	가. 현 정책 개선 요구	1) 독거 노인 복지 정책 실효성 여부 2) 기초연금(노령연금) 시스템 개선 요구 3) 정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관심 필요 4)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개선 요구
	나. 새로운 정책 요구	1)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 기획 필요 2) 지속적인 고령 친화 프로그램 필요

## 1) 세대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인들은 지금까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경험했던 세대 교류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책사업 참여자로서 노노 케어를 하고 있는 경험과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등이었다.

### (1) 세대 교류 경험과 지속 가능 문제

#### 가. 세대 교류 경험

“노인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도와준다기보다는 그 분들의 생활을 내가 보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못 느꼈던 노인들의 생활을. 사람마다 다른 그 생활을 보고 있어요. 각양각색의 인생들을 보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생활을 배운다고나 할까요?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실생활을 알아가고 있어요.” (여성 노인 4)

“젊은 중학생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책 읽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때 어려웠던 점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게 좋더라고요.” (여성 노인 6)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임대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독거사가 많으니까 단지 안에 노인 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일을 했어요. 한 여자 분을 돌보았는데 전화도 하고 단지 안에서 방문도 했는데, 음식을 해서 많이 나눠줬어요.” (여성 노인 6)

#### 나. 지속 가능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개선 요구

노인들은 경험했던 세대 교류 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프로그램이 다시 열리지 않았거나 본인이 정책사업에 참여 가능한 나이를 넘었다는 이유 등이었다.

“아쉬웠던 점은 프로그램이 금방 끝났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 게 아니라는 점이 아쉬웠지. 그때는 그게 한두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여성 노인 6)

“나이가 지나버려서 더 이상 보험을 들지 못하니까 노노 케어 사업 참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올해는 나이가 넘었다고, 직원 보험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쑥한데 왜 안 써주냐고 했어요. 찌개나 국 같은 거 만들어주고 재미나게 잘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10만 원 받았어요. 오히려 나보다 어린 사람이었는데. 교통비 들 것도 없고 편했는데. 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쉬웠어요. 제도적으로 나이에 따라야 하니까.” (여성 노인 4)

## 2) 청년과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노인들은 앞으로 청년과의 교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와 1시간 남짓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 가. 심리적인 편안함 예상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가까워진다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청년이라면 손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대하기가 버겁지 않고 편하게 대하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격이 없어질 것

같아요.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와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면 괜히 격식 차려야 할 것 같거든요. 청년이라면 체면 차릴 것도 없이,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 내가 늙어서 그런 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내려가니까 좀 더 좋은 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손주가 내 자식보다 편안하다고. 왜냐하면 자식까지는 내가 느끼는 책임감 같은 게 있지만 손주만 해도 온전히 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편한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여성 노인 5)

#### 나. 디지털 활용에 대한 도움 예상

“청년과 함께 디지털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보다 스마트폰을 잘하니까, 키오스크도 있고. 그런 계통의 것. 요즘은 전기자전거도 앱으로 타고, 그런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소통하면서 그런 사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남성 노인 1)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니까, 첨단을 걷는 학생, 청년이 와서 노인들의 사고를 조금 바꿔줄 수 있다면 우리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지.” (여성 노인 6)

#### 다. 청년에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에 대한 기대

“새로운 세계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아 요새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부분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성 노인 2)

“청년들은 희망이니까, 뜨거운 열정과 미래에 대한 모험심이 있으니까. 그런 게 침체되어 있는 노인한테는 청년들의 그런 태도가 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재네들 말 들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거.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다면 70대 노인과 20대 청년들이 어떤 한 팀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자 나름대로 교환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팀이 되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짜서 이걸 달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프로그램

이라든가...” (여성 노인 6)

## 라. 노인이 가진 강점에 대한 언급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편하가 많아요. 복지가 좋은 다른 나라들은 노인에 대한 평을 높게 보더라고. 우리나라는 젊은이 노는 곳에 노인이 한 명도 없어. 북유럽 같은 나라는 축제 때 노는 거 보면 다같이 섞여서 청년, 노인 그렇게 노는데 저는 그게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틀딱이라고 하고 굉장히 편하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도 다 괜찮아요. 많이 배웠고.” (여성 노인 6)

“청년들과 어울리는 한마당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인은 노인대로만, 청년은 청년대로만 ... 그거보다는 함께. 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살아온 경험. 마을에 노인이 사라지면 도서관이 하나 사라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살아온 세월 안에는 실수, 잘못도 있고 많겠지만요. 청년은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런 거에 대한 대화가 되면 좋겠죠.” (여성 노인 3)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늙은 말이 길을 잘 안다’는 말도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늙기 전에 앞에 간 노인들을 보고 준비를 하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봐서 실패한 거 어려운 거 전수해줄 수 있잖아.” (여성 노인 2)

## 2) 정보 기기 활용 경험과 지원 요구

### (1) 정보 기기 활용의 혜택 경험

#### 가. 스마트 워치와 어플을 통한 운동/건강 관리

“이 시계를 차고 생활하면 하루에 걷는 거, 폐활량, 잠자는 시간, 체지방, 생체리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 막 움직이라고 떠. 어플로 연결해두면 인바디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좋아요. 복지관 체육 담당하는 곳에 입력도 되고...” (같은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 네 분)

## (2) 정보 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 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변화 속도와 적응 과정에서의 걱정

“내가 조금 기계치거든요.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든지, 컴퓨터 사용이 불편해요. 젊은 애들처럼 빠르게 되지 않잖아요. 잘못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하지만 요즘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뒤떨어졌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성 노인 5)

“아무리 디지털 디지털 하지만 우리는 사실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능숙하게 적응하지 못해. 그렇다 보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말이지. 노인이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다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꼭 모든 면에서 디지털을 따라가야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 (남성 노인 1)

### 나. 정보 기기 이용 교육 요구

“컴퓨터니 스마트폰이니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아날로그 쓰는 사람도 많잖아. 한다면 그래도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용어부터도 힘든데, 노인들 상대로 시나 어디에서 정기적으로 무료로 해주는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전문가 시켜서 해주면 좀 낫지 않은가? 지금 복지관에서 돈 내고 배우는 건 있어요. 기초부터 배우고 필요한 걸 더 배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 노인 1)

### 다. 일상적인 디지털 어려움 해소 필요

“게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복지관 복지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게 답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죠. 그 때 그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알림이 계속 뜬다든가...” (여성 노인 5)



### 3) 노년기를 위한 지원과 개선 요구

노인들은 각자의 경제, 가구 수, 건강 등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현 정책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현장에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근본적으로는 실제 당사자와 현장의 필요가 정책 기획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노년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수렴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느꼈다.

#### (1) 현 정책 개선 요구

##### 가. 독거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독거 노인을 위해서 실질적인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노인 유치원을 다녔는데도 혼자 있을 때의 고독사는 막을 수 없었대요. 나도 85세의 고령 독거 노인이라서 주민센터에서 전화 와요. 전화로 별 일 없냐고 묻는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형식적인 전화가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건 가져다주는 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고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 나가니까요.

계속 혼자만 있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신체적으로 어려워서 밖에 아예 못 나가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성 노인 2)

##### 나. 기초연금(노령연금)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

“우리 같이 자식 없이 두 노부부만 사는 집에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있고 자기네 재산을 다 아들딸에게 넘겨놓고 정부에서 해주는 복지·돈 주는 것을 다 받는데. 우리는 소득이 200이면 그 분들은 소득 몇 천만 원씩 되는데도 의료보험 하나도 안 내고 혜택은 다 받는 것에 불만이 있어요. 앞으로는 자식들을 많이 안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

성 노인 4)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사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여성 노인 5)

다. 정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필요

“사실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일일이 가서 (정책 정보/혜택 등) 전해주기에는 너무 버거워. 해주는 입장에서도 PR이 덜 되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어느 단체를 향해서 뭉땅 줘요.

그래서 복지관을 나온다는가, 노인정을 나온다는가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게 돼요. 전시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노인정만 하더라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 3만 원 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해결책을 내기 쉽지 않은 거지. 작은 단위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니까.” (여성 노인 3)

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개선 요구

“수업 주제와 노인들의 생각이 안 맞아. 노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아이들 내용을 틀더라고. 복지관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수업이기는 했어.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노인이 원하는 것이 안 맞더라고.

노인들도 옛날에 교육받고 나름대로 음악도 다 좋아하고 몸은 늙었지만 머릿속에 든 것은 고급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길 줄도 아는데...

노년의 의견이 프로그램에 잘 담기지는 않아요. 연말에 설문지를 해도 엄청 반영되지는 않더라고.” (여성 노인 6)

“복지관 수준으로는 인문학 강사의 강의를 주기가 벅차다고 하더라고.” (여성 노인 3)

## 2) 새로운 정책 욕구

### 가.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 기획 필요

“정책 할 때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현장 분위기는 모르잖아.” (여성 노인 2)

“정책과 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정말 노인을 위한 것이라면 노인의 정서에 맞춰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복합적으로 노인들을 조사하는 곳이 설립되어서 노인들을 체크해줬으면 좋겠어. 대학교를 정할 때 공개로 상담을 받았잖아. 노인 정책, 노인 관련 부서가 지금 너무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져.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고령화가 되고 세분화될 거니까.

창구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노인은 10만 원짜리 일지라도 할랍니다, 20만원짜리 할랍니다 등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노인들의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나라,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정해두고 따라가는 거니까.” (남자 노인 1)

### 나. 지속 가능하고 주기적인 고령 친화 문화 프로그램 필요

“책을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독서 모임 만들어서 다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도서관 직원에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직원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추리 소설을 읽는다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어떤 할머니가 추리 소설 많이 읽는다고 하니까, 할머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성 노인 6)

“자조 모임이라고 있잖아.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봉사자가 모임 전에 주제를 하나(영화, 책 등) 주고 만나는 거지.

우리는 말이 고픈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을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카페라든지 어디서든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은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되고, 우리는 그 사람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고 열흘에 한 번이고 ‘아무개 청년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

좀 많이 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거지.

나라에서 비용을 주고, 우리는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까. 꼭 1:1 아니어도 되고.

봉사자가 잘 리드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가 잘 나오게끔 조절을 해서 여러 사람이 다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고.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라고 하면, 노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읽어 볼 거고, 요약해서 노트 필기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해." (여성 노인 6)

## V

## 결론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 시사점 도출, 경기도 노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세대 간 상생 도모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결론 및 시사점

경기도 거주 노인 심층 면접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세대와의 교류에 대해 ‘심리적인 편안함’, ‘디지털 활용 도움’, ‘신선한 관점’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노노 케어, 1세대-3세대 간의 세대 교류 경험에서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대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둘째, 면접 참여 노인 모두가 디지털 정보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보 기기 이용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일상적인 디지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물어볼 가족, 손자 손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현 노인 정책과 실제 현장 간의 간극을 지적했다. ‘독거 노인 안부 사업’, ‘기초연금(노령연금)’,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등의 키워드가 언급되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모두 헤아리기가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와 틈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하고 고령 친화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 맞춤 기획’을 하고 ‘세대 간 교류’의 경험을 이끌어내고 이

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2. 개선 사항 및 제언

경기도 노인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상생을 위해 청년 지원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년이 디지털 전환·격차 해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가칭, 찾아가는 ‘청년 소셜 커넥터’이다.

### 1) 디지털 분야에 적용

현재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집 근처 배움터에서 정보 기기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배움터의 위치가 다양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로그인 자체가 어려우신 노인은 디지털 배움터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휴먼 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기기 교육도 진행하지만 앞으로 생겨날 많은 디지털 치료제 등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될 수 있으려면 개인별 맞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디지털을 적용하고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 역할은 디지털 원주민인 청년에게 별도의 학습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으로 미래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로봇, AI 육창 방지 침대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노인의 이용이 어렵다면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발전하는 디지털 기기와 노인들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청년의 역할을 기대한다.

## 2) 정책 분야에 적용

고령 친화 정책에 노인 당사자의 수요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소셜 커넥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령 친화 정책 기획과 개선이 필요할 때 청년 소셜 커넥터로 활동하며 보고 경험한 노년의 생활에 대한 조언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정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노년을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정당한 비용 지불 및 혜택 필요

청년에게 청년 맞춤 근로 사업 형태로 시간당 활동비를 지급한다. 참고로 ‘디지털 세대 이음’ 사업에서는 활동 시간을 월 최대 42시간(주 2회)으로 설정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1만766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청년에게는 익숙한 ‘깁 일거리’의 형태로 공장 시간, 유희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처럼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4) 서비스 제공 방식

노인이 해결하고 싶은 정보 기기 사용법을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디지털 교육과’(가제)에 제보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동네 청년을 연결해준다. 해결하는 건당 보상을 받는다.

둘째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세대 간 교류 경험을 만들기 위해 청년 새싹 강사의 데뷔를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노인복지관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강사와 프로그램을 공모·섭외한다. 강사의 조건으로는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존 경력이 있는 강사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섭외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프로그램의 종류와 주제가 다양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강사 고용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력은 없지만 강사가 되고 싶은

청년 강사 지망생의 데뷔 무대를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노인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어떤 주제를 깊이 아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배운 후에 원하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주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처음에는 심화 수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문 수업을 청년 강사가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계속 입문 단계의 수업만 진행된다면 노인 입장에서도 지루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가 심화 단계의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노인 면접 참여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이 가진 새로운 관점, 에너지가 노인들에게 전해지며 자연스러운 세대 교류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청년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되며, 노인복지관 입장에서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동한 한국리서치 차장, ‘사분오열 대한민국 ④ - 세대 이해가 세대 갈등 해결의 실마리’.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혐오 기획] 세대 갈등을 딛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법’.
- 50+시민기자단 양해순, ‘시니어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서울  
시50플러스 포털.
- 한국건축문화대상 역대 수상작 2017 : 세대 간 공존을 꾀하다. 관계 + 세대 = 연결하다.  
이재웅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세대 간-계층 간 모바일 정보 격차 현격해」 보  
고서.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년 디지털 기반 고령 친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예비창  
업자 과정(27기) 참여자 모집 공고.
- 황남희·김혜수·김경래·주보혜·홍석호·김주현, 2020,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46.
- 강유선 투데이신문 인터넷지자, 「우리도 결국 노인이 된다 ②」 세대 간 점점 부족이 낳은  
불통…해결방안은’.
- 한국리서치, [세대 인식 지표 - 2022년] 세대 갈등 인식과 전망.
- 문혜선, 2019, 『고령 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 친화 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 정은하, 2016, 「해외의 고령 친화 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세계와 도시』 제12호, 서  
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 원형민 연합뉴스 기자, 「[그래픽] 고령자 가구 전망」.
- 김규성 파이낸셜뉴스 기자, 「30년 뒤 1~2인 가구가 대세된다」.
- 문진영·정순돌, 2020, 「노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 서울 노인의 연령 집단별·  
정보 종류별 정보 매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손의현 중대신문 기자, 「기대되는 정보화 시대, 노인이 기댈 곳은」.

윤아람 파이낸셜뉴스 기자, '[시끌이끌] 세대 차이보다 큰 '디지털 격차'...5060 "하는 법을 몰라요"'.  
을 몰라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봐',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박희진 고양파주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왜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이 시급한가', 복지타임즈.

박윤정 동아일보 기자, '청년 노인건강관리지도사 양성해 노년기 삶의 질 높인다'.

박종일 아시아경제 기자, '성북구, 고령 친화 맞춤형 하우징케어 분야 청년 인재 모집'.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한 지붕 세대 공감'.

서울시50플러스 포털, 2022 '디지털 세대 이음단' 참여자 모집 공고.

정순돌·어윤경, 2012, 「WHO의 고령 친화 도시 모델 가이드 총족도 분석 : 제2차 저출  
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3), 913-926쪽.

윤은숙·류혜경·조아라·홍승완 아주경제신문 기자, '[노인의 날 기획] '키오스크 포비아' 무  
인 기계가 두려운 노인들'.

통계청, 2022, 「장래 가구 추계 : 2020~2050년」.